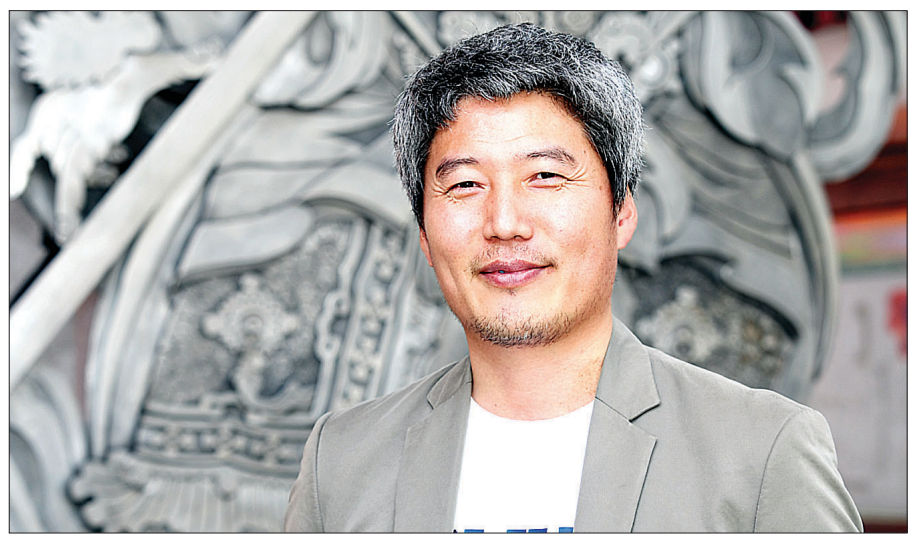


문화 “불교미술 과거에서 깨어나 현재를 말하고 미래 도모해야죠”

롯데아트페스티벌 기획위원장 김영수 작가



김영수 작가는 롯데아트페스티벌 기획을 통해 불교미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hillo@hyunbul.com

“절마다 박물관은 있지만 미술관은 없잖아요. 불교미술이 현재가 아닌 과거에 있다는 반증이죠. 하지만 과거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빠져 현재를 볼 수 없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불교미술이 과거가 아닌 현재로서 발전하고 동시에 미래를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데아트페스티벌을 기획한 김영수 작가는 열악한 불교 미술의 현재를 비판만 하는데 머물지 않았다. 불교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롯데아트페스티벌을 기획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사실 지금까지 불교미술하는 사람들이 기본 좋은 일이 없었어요. 롯데아트페스티벌은 불교미술인들이 모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관람객들을 만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죠. 지난해에 비해 부스가 두 배 늘기도 했고 작가 매출도 10배 이상이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아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만화전 역시 시기적으로 웹툰이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획하게 돼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김 작가는 내년 아트페스티벌을 위한 준비로 바쁘다. 국내외 교류를 통해 롯데아트페스티벌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김영수 작가는 불교조각가 유수현 선생으로부터 사사하며 불교미술을 시작했고 이후 불교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원을 세웠다. “동산불교대 청년회를 다니며 수행과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배운 위빠사나 수행은 제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10여년 참선수행을 하면서 이문을 정립하기 위해 선학을 공부했습니다. 현재도 여러 기관에서 명상을 지도하는 ‘명상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행과 작품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김 작가는 지금까지 ‘무아’ ‘탄현대중사의 흔적

불교미술의 현재 돌아보고 미래 이끄는 방향 전환 필요 작품활동과 더불어 명상도 지도

을 찾아 ‘거짓말’ 등의 전시를 열며 대중들과 소통해왔다. 특히, 불교미술이 형식적 틀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는 개인전 ‘거짓말’을 통해 이를 보여줬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또한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잖아요. 보잘 것 없는 행위기에 금박을 입혀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불상에 금을 입히는 것은 영원한 가르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역으로 보면 가르침은 사라지고 금으로 치장해 부처님을 신격화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순된 현실을 금을 입힌 행위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장되고 이중적 모순에 빠진 우리 현실이 바로 금박을 입힌 행위기죠.”

김 작가는 예술도 삶도 불교라는 근엄한 틀에 갇히는 것을 거부한다. 이런 그가 4년여 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바로 방물단이라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연 것이다. “방물단수에서 모티브를 따왔어요. 방물

단수는 지금으로 치면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고 선진문물을 가져오는 사람이잖아요. 이처럼 방물단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정무역, 사회적 경제장터, 도시농업축제, 예술가들을 위한 ‘헬로우 문래’ 등의 장터를 통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예술가인 그가 이렇게 방물단을 열게 된 것은 예술가 이전에 불자로서 공생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니 아무래도 함께할 수 있는 삶을 동경하게 되었죠. 방물단에서 여는 장터는 이런 가치 있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한 달에 한번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열리는 달시장은 매번 1천여 시민이 몰려와 재활용시장, 수공예 작품 판매, 축제와 워크숍 등이 펼쳐집니다.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 펼쳐지죠.”

누구나 꿈꿀 수는 있다. 하지만 부족한 현실을 채워 나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그래서 김 작가는 열악한 불교미술의 현실을 바꾸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상적 삶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현실의 모순을 보여주는 ‘거짓말’



유쾌하게 표현한 ‘춤추는 달마’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열리는 달시장

매이고 벗어남은 원래 다름없으니

부목화상과의 깊은 교류

이색의 문집에는 송광사 부목화상(夫目和尙)과의 교류시가 5편 가량 수록되어 있다. 부목화상의 전기는 미상이지만 당시 영향력 있는 스님이었고 이색과는 상당한 교분이 있었음을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13 이색과 송광사 16



송광사 전경. 보조 지를 스님의 부도가 송광사 경내를 굽어보고 있다.

송광산조체(松廣山 迢) 명전대길상(名傳大吉祥) 장신능간고(長身能幹高) 대후위반향(大后爲頒香) 주실청풍담(籌室淸風榻) 남의명월랑(衞衣明月廊) 삼생습기탁(三生習氣濁) 회수경장망(回首更蒼茫)

송광산은 아스라이 멀리 있어 이름은 대길상이라 전해 오는데 큰 계구는 선대 사업을 잘 이행하고 태우게는 위하여 향을 내리었네. 주실엔 청풍의 선담이 놓여 있고 남의는 맑은 달 아래 복도를 거닐리. 나는 삼생의 습기가 혼탁한지라 머리 돌리니 다시 아득하기만 하네. -이색 ‘대서하여 송광의 화상에 올린다’ (묵은시고) 제8권

이 시가 ‘부목화상’을 향한 것이라는 설명은 따로 없지만 이색의 다른 작품들이 대개 부목화상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이 작품 제목에 걸린 ‘송광의 화상’ 역시 부목화상으로 보인다.

이색의 시대 송광사는 송광산 수선사로 불렸을 것이다. 이 시에서 말하는 송광은 산 이름이면서 절을 뜻한다. 큰 절은 품은 산은 그 이름으로 산과 절을 다 품는 것이다. 송광산이 아스라이 멀다는 것은 이색 자신이 살고 있는 곳(개성)과 멀다는 의미도 되지만, 절의 역사가 아득하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곧 이어 대길상이라는 신라 때의 절 이름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큰 계구’도 시의 대상인 ‘송광의 화상(부목화상)’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송광사 승려들의 통칭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곧 이어 송광사가 정혜결사의 정신을 잘 이어 왕실의 보호를 받는 것을 찬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첩된 의미로 시를 읽으면 ‘주실엔 청풍의 선담이 놓여 있다’는 대목에 드러나는 의취를 더욱 확장하여 새길 수 있다. 이 대목이야말로 시에서 불어오는 정량한 바람 한줄기다.

주실은 수행자를 잘 가르치는 훌륭한 스승 즉 방장화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籌)’는 셈을 하듯 때 사용하는 산가지라는 말이다. 서천(인도)의 제4호 우바국다 스님이 한 사람을 제도할 때마다 산가지 하나를 내려놓았는데, 그렇게 쌓인 산가

지가 높이 20척 넓이 30척 되는 방에 가득 찼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로부터 교화를 잘 하는 수행자가 머무는 곳을 주실이 라 했으니 방장을 상징하는 말로 변용되었다.

아무튼 이색은 부목화상을 향해 주실의 주인으로 맑은 수행가품을 지고 있음을 노래하며 맑은 달 아래 남의를 입고 회랑을 거니는 유유자적한 풍모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송광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님을 그리며 시를 쓰는 이색의 시인(詩眼)은 자신을 향한다. 이 또한 이색의 높은 문학적 성취다. 멀리 있는 스님을 찬탄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시의 뜻은 건조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색은 ‘삼생의 습기’를 제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응시하고 아득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으니, 공민왕에게 불교 억제책을 제시했던 그의 정치적 입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봉화천애취진진(烽火天涯吹戰塵) 벽라심처각장신(壁羅深處却藏身) 지음박탈원무이(遮縛脫元無二) 노아유연미도진(老我悠然味道眞)

천애에 봉화 오르고 전쟁 먼지 불어낼 제 벽라 널굴 깊은 곳에 문득 몸을 숨기었네. 용당 매이고 벗어남이 원래 다름없기에 늙은 나 또한 유연히 잔리에 맞붙었다오. -이색 ‘송광사(松廣寺) 부목화상(夫目和尙)이...’ (묵은시고) 제17권

이 시의 제목은 ‘송광사(松廣寺)의 부목화상(夫目和尙)이 왜(倭)를 피해 영대사(靈臺寺)에 있으면서 차(茶)를 부쳐 준 데

대하여 받들어 사례하다’이다. 시의 제목을 보면 이색이 깊이 교류하는 부목화상은 왜의 노략질을 피해 영대사라는 절에 머물고 있는데, 그러한 환난 가운데도 이색에게 차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 말고도 차와 부채를 보내준 데 대한 답례 시도 있다.

아무튼 이색은 부목화상에 대해 전란을 피해 다른 곳으로 피신한 정황을 위로하며 ‘매이고 벗어남’이 둘이 아님을 말한다. 유학의 선비로서 불교의 불이상을 들어 스님을 위로하는 격이다. 그런데 이 따뜻한 위로가 그냥 하는 위로가 아니다. 사실은 이색 자신도 이미 세상의 이치가 ‘불이’임을 잘 알고 있다는 고백으로 시가 종결되고 있는 것이다.

존경과 그리움의 마음 시에 담다

이색은 다른 시들에서도 부목화상을 매우 존경하고 늘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 선사는 백업(白業)을 지은 지 오래라/ 꽃을 보고 일찍이 활짝 웃었는데/ 다생 속에 서로 교분을 맺어서/ 나의 병든 몸을 불쌍히 여기어/ 부채를 주어 내 몸을 서늘하게 하고/ 차를 주어 내 속을 맑게 하느니(我師業白久 拈花曾破顏 多生托交契 憐我病骨酸 扇以涼肌茶 以清我肝(묵은시고) 제11권)’라는 대목이 의미심장하다. 백업은 선업(善業)과 같은 말이다. 이 시는 부목화상이 차와 부채를 보내준 데 대한 감사의 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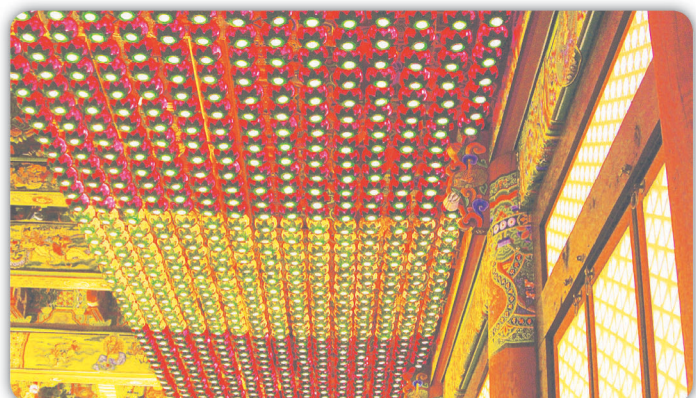
또 ‘오래전에 송광사 떠나셨더니/ 표현히 수원에 와 계시는구려/ 목옹이 지금 목마르게 사모하는데/ 언저나 종문의 어르신 찾아볼는지(久矣離松廣 飄然在水原 牧翁渴何仰 何日過宗門)’라는 화답시에서 간절한 그리움을 엿볼 수 있다.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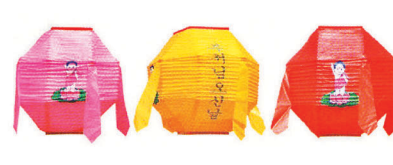
바 립 등



자 비 등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각접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길 이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시설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 등



BORYEON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